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race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구세주를 아는 이들(찬14/새26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최주상 장로 2부/탁정호 장로 3부/한상섭 장로 4부/김소라 집사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님의 뜻(박지훈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골로새서(Col.) 4:10-18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1:10-19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23) 동역의 희비: 마가와 데마에 대한 상고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3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우리 함께 기도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성경책거리-다음 강해시리즈를 준비하면서

A Biblical Book-Ending Celebration: Preparing for the Next Series

골로새서 강해 Supreme Jesus 시리즈를 마무리 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책을 한권 떼면 책거리를 하는데,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 할 때도 그 비슷한 것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옛날 서당 시절에는 학동들이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음식을 준비하여 훈장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23번의 설교를 청취하고 은혜의 삶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물한잔이라도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적용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체험하게 되었고, 저 역시 설교자로서 옛날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주일마다 시기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마무리 하면서 2000년전 쓰여진 편지가 오늘 생명력 있게 살아서 우리에게 여전히 진리이시고, 삶의 적용이 효율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는 셀 모임에서 나누며 진정한 책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어느 성경을 강해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호세아 말씀을 강해하려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몇 가지 호세아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혼할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가가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둘째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결혼을 명하신 하나님이 바보 같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문 중 가장 유명한 [The Prodigal Son(탕자)의 비유]에서 책제목을 따오면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분은 탕자 보다는 하나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이 호세아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바보 같고, 불성실하고 믿음을 저버린 백성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끌어 안고 있는 하나님 역시 바보 같습니다. 23살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를 시작한 세월이 41년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더 자신을 잃고 바보가 되는 기본입니다. 그런 저를 지금까지 포기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더 바보 같습니다. 저는 저의 청사진을 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고맙 같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더 바보 같은 하나님을 보며, 같이 회개하며 매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As we conclude the "Supreme Jesus" series through our study of Colossians, a flood of emotions comes over me. It feels somewhat like the tradition of holding a book-ending celebration when a child finishes a book, and I wonder if something similar is appropriate when completing a sermon series. In the old seodang schools, when a student finished learning a book, food would be prepared as an expression of gratitude to the teacher. In that same spirit, I want to offer at least a glass of water to the congregation members who have listened to 23 sermons and testified to living a life of grace, as a small expression of my thanks. I sincerely thank those who receive the apostle Paul's letter to the Colossians as the living Word of God today and apply it to their lives. It is because of such members that I have experienced God as a living, speaking God. As a preacher, I have realized that I am not merely reading an old text; rather, I am expositing the Word God gives today, and I cannot deny the timely message He provides each Sunday. Thus, as we conclude Colossians, I believe that a letter written 2,000 years ago is still alive, still true, and still an effective guide for life. I hope that in the upcoming cell meetings, sharing this grace will become a true "book-ending" celebration.

As I have prayed about which book of the Bible to study next, I have decided to focus on the book of Hosea.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choice. First, reading Hosea, I cannot shake a deep compassion for the prophet. He was commanded to marry a woman who would follow other men, and yet, despite how foolish or naive this seemed, he obeyed. Second, I am in awe of God, who commanded Hosea to enter this marriage, and yet, in doing so, also appears remarkably "foolish."

Pastor Tim Keller wrote a book called The Prodigal God. Drawing from Jesus' most famous parable, The Prodigal Son, Keller points out that the one who seems most foolish is not the wayward son but God. That seemingly foolish God is vividly revealed throughout Hosea. The prophet who declares God's message may appear foolish, yet God continues to embrace a faithless and unfaithful people instead of abandoning them—God is foolish in the best and most beautiful sense. I have been in ministry for 41 years, having begun as a 23-year-old pastor. Ministry often feels like losing oneself and becoming foolish, yet I have learned that the God who continues to use me without giving up is even more "foolish." As I reflect on my own plans and gaze upon this God, I desire that we repent together and listen to His Word with renewed focus and devotion each week.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23)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동역의 희비: 마가와 데마에 대한 상고

(골 4:10-18)

1.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ministry)'이 있습니까? 함께 뜻을 합쳐 하는 동역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2.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내 주위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 보며,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 1) 아리스다고 _____ (10절, 참고/행 27:1-2)
- 2) 마가 _____ (10절, 참고/행 15:36-39)
- 3) 유스도 _____ (11절)
- 4) 에바브라 _____ (12절, 골 1:7, 몬 1:23)
- 5) 누가 _____ (14절)
- 6) 데마 _____ (14절, 참고/딤후 4:10-11)

3. 마가와 같이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데마와 같이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 명단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깨달음을 줍니까?(참고/ 마 26:35, 마 10:2-4; 롬 12:18,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비교하며 답해 보십시오.)

4.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바울을 위해 눈이라도 빼 줄 수 있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갈 4:15). 좋은 선생은 좋은 학생이 만든다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있으면 나도 동역자 하겠다는 말보다, 바울 같은 좋은 사도를 만드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 적용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적용하기



예배
엘리사 새벽기도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의 은혜

온유목장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졸음운전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아이들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막내는 한 번도 수련회에 가본 적이 없고, 한어중고등부(CIM) 예배도 처음이라는 친구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련회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고, 마지막 햄시바 새벽기도를 마친 후 본 한어중고등부(CIM) 예배 영상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춤추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삶의 무게와 걱정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소중한 선물을 고백하며, 그 선물을 온전히 맡길 때 주께서 분명히 일하심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경하 집사

저는 이번에 배홍수 목사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새롭게 온유목장 포도나무 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와 함께한 12여 년의 여정 가운데 이번이 저희에게는 네 번째 셀이 됩니다. 어느덧 한 살배기 아가였던 호연이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순항할 줄 알았던 식당 동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한 해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셀의 부름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고비에 있던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어려운 문제에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셀가족 모두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와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가 세대를 이어 영존하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황의진 집사



선교
캄보디아 1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



캄보디아1 단기선교팀은 8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황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시는 프랑저이에 있는 New Hope School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 '또 가고 싶은 선교'라는 비전을 갖고, 16명의 팀원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감사, 기쁨 속에 캄보디아로 출발했습니다.

New Hope School에서 이틀간 VBS와 치과, 한방, 안경 사역을 하며 매일 24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HOPE CHURCH에서도 4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한 쓰레기 매립지 마을이란 열악한 삶의 현장을 마주하며, 집이라 부르기 어려운 천막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쌀 교환 쿠폰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캄보디아에 오신 간증과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프롤라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New Hope School을 떠나 4시간을 달려 끼푼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4시간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외딴 시골이었고, 학교라기보다는 허술한 가건

물이 가까운 그곳에서 80여 명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나 VBS와 의료 사역을 나누며, 태어나 처음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과 어렵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이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먼저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며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성균 집사

선교
BAM Connect 팀

선교 현장에 가지 않고도 선교를 한다구요?



BAM Connect 팀의 사역을 '선교'라고 설명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의아해하며 질문하십니다. '선교지 현장도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나요?' 맞습니다. BAM Connect 팀은 비행기를 타고 선교 현장에 가지 않고도 선교를 하는 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팀이 현장을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필요할 때는 직접 찾아가 사역하기도 합니다. 이를 '리모트 선교'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여행을 하지 못해 멀리 있는 친구들과 카톡이나 줌으로 안부를 나누던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입니다.

최근에는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면서, BAM(비즈니스 선교) 사업을 통해 거주 비자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AM Connect 팀의 사역 대상은 바로 이 BAM

사업을 운영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큰 작은 사업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타문화권에서 이를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성도님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찾아 선교지 BAM 사업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로고 디자인, 웹사이트 구축, bookkeeping 등 필요한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BAM Connect 선교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교의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한 성도가 선교지의 BAM 사업에 헌신하면,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계 업무를 맡으며 선교사님과 카톡이나 줌으로 소통하고 기도하며 함께 선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교의 효율성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학업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인이 직접 해결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BAM Connect 팀은 성도님들의 전문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M Connect 팀의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개념의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허용진 장로



사역 소개
마네소누스 중창단

마네 소누스 마음을 깨우는 아침의 소리

마네 소누스(Mane Sonus)는 '아침의 소리', '새벽의 울림'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중창단입니다. 라틴어 Mane(아침)와 Sonus(소리)에서 비롯된 이 이름에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맑은 울림과, 고요 속에서 서서히 퍼져 나오는 섬세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 햇살이 어둠을 걷어내듯,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새 소망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마네 소누스는 베델교회 안에서 찬양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전문 성악가도 아니고, 화려한 무대 경험을 가진 이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걸음은 부흥회, 신학강좌, CIM 찬양집회, 양로원 사역, Beyond the Blue 찬양 인도 등 여러 특별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노년의 성도들에게 눈

물의 위로를,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도전을 전하며, 저희의 찬양은 단순한 하모니를 넘어 기도와 간증이 되었습니다.

각 곡을 준비할 때마다 저희는 단순히 음정과 화음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며 말씀을 되새깁니다. 연습 시간은 음악 훈련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작은 예배가 됩니다. 외롭고 지친 이에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믿음이 흔들린 이에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소망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줌으로써, 공동체적 사랑과 교제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저희의 목소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울림은 멀리 퍼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마다 감사와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시100:1-2)

앞으로도 마네 소누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아침의 소리'처럼 밝고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 위로와 기쁨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김주현 집사



교회학교
초등부 수련회

Faith That Grows at Summer Retreat

As a TA in the Jr. Elementary retreat, I was responsible for leading a small group, motivating the students in my game group, and having fun while inspiring them with Jesus. During small group conversations, God revealed to me the importance of having a sincere, child-like faith. Growing up in a world full of distractions, it is easy for us to fall distant from God. However, depending on Him and trusting in His goodness is what keeps our faith strong and rooted in Christ. To every 4th or 5th

grader: your first priority is always God.
Sophia Rhim(9학년)

retreat truly helped me go deeper into God's word, and I felt joyful and thankful.
Sean Kim(5학년)



I went to a retreat the other weekend, and there I experienced so many new things while learning more about God. I learned that people should spend time with Him not only privately but also together in a group. I also discovered that God provides for our needs and can speak to us in many different ways. Some of the most fun parts were swimming, ziplining, doing skits, and joking with friends at night. This re-

At this retreat, I had many wonderful and unforgettable experiences. One special memory was sleeping away from home for the very first time. At first I felt a little nervous, but I quickly became comfortable because my friends were with me the whole time. Another amazing memory was zip-lining, where I could clearly see the beauty of God's creation. I also enjoyed creating funny skits and watching others perform theirs. Most importantly, I learned that God can do anything when we truly believe in Him. I am very thankful for everyone who made this retreat possible.

Madison Koh(5학년)

사역
기도학교

자녀를 위한 기도편지

'자녀를 위한 기도편지'는 교회와 부모가 함께 기도를 통해 자녀들과의 신앙의 끈을 든든히 이어가기 위한 사역입니다. 학업이나 직장으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자녀,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자녀까지 모두를 품고(학생부터 성인까지), 17주 동안 매주 금요일 기도편지와 말씀 이미지 카드를 보냄으로써 교회와 부모가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느끼며 신앙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자녀 세대를 위한 중보의 사명에 동역하

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수요일예배(자녀위한 기도회) 후 현장 부스에서만 받습니다. 이는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만사 제쳐놓고 달려 나오는 부모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프로그램으로 세 위

PRAYER
기도편지
매주 제공되는 3종류의 기도편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세요

REPLACING FEAR OF NEW BEGINNINGS WITH FAITH

Scripture: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Proverbs 3:5-6, ESV)

Prayer: Lord, we pray for our child who is stepping into a new year and a new environment. May fear not grip their heart, but they learn to trust in You fully. In unrelenting classes with new teachers and friends, and amidst the chaotic daily rhythms, let them acknowledge You in every step taken.

Even when mistakes are made, remind them that they did not choose for shame but opportunities for growth. Help them to see that their worth is not through the eyes of others but through your loving gaze.

Guard that our child may leav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and teachers, yet may their deepest desire not be the approval of people but the joy of pleasing you.

Father, guard their steps throughout this week. Strengthen them in both their studies and relationships, and as they begin their new year, let them begin with joy and thanksgiving in the fruit of their faithful hearts.

이번 주 수요일(8월 27일)이 마지막 접수 기회입니다.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신 후 현장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개설된 카톡채널에 초대되어 매주 교회가 제작한 기도편지를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기도편지 중, 자녀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선택해서 부모님의 간단한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자녀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기도편지는 한글과 영어로 제작되어 배부됩니다.

교회와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흩어진 마음을 예배로 다시 모으고, 멀어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 거룩한 여정에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와 동역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손용주 목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 Joy/화평/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전도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Back to School ICOF!

사랑하는 베델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9월 5일(금) 저녁,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가족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 학기가 막 시작된 이 시기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와 찬양, 감사의 시간을 나누는 특별한 9월의 금요일 밤이 될 것입니다.

예배 전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리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날짜: 9월 5일(금)
- ▶ 프리페스티벌: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코트야드
 - 푸드트럭 저녁식사(교회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각자 구입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 게임
 - 가족 레이저태그
 - 패밀리 포토부스
 - LAFC 경기 관람권(순흥민 선수 소속 팀) 한 가족 추첨
 - 그 외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
- ▶ 예배: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본당
- ▶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9월)	8/31: ①부-허용진	②부-홍승평	③부-황세현	④부-윤지섭
	9/7: ①부-김도석	②부-구윤모	③부-강덕규	④부-김지수
	9/14: ①부-권조원	②부-김건성	③부-김도형	④부-김진형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8,9월)	8/30: 김기주	9/6: 김광식	9/13: 김석열	9/20: 김동균
	강단꽃(8,9월)	8/24: 최하자	8/31: 이수민	9/7: 정윤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재호(한의학), 간호사-윤성자 다음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이혜경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영매), 호세아(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화요큐티모임 '울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울림, 내 이야기가 당신을 울림" 화요큐티모임 '울림'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전 세대가 한 말씀으로 큐티하는 베델교회가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자 하는 갈급함이 더욱 커져가는 이때, 화요큐티모임을 통해 말씀과 삶이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 세대와 가정이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이 녹아 있는 찬양과 간증, 그리고 말씀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 성도 여러분을 화요큐티모임 '울림'에 초대합니다!
- ▶ 소그룹 나눔 접수: 8월 17일(주일)-8월 31일(주일), QR코드 및 접수 부스에서
- ▶ 첫 모임/장소: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EM채플
- ▶ 일정: 9월 2일(화)-11월 25일(화),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11시 30분, 큐티 집회, 모든 분이 참여 가능
- 오전 11시 30- 12시 30분, 소그룹 나눔, 소그룹 나눔 접수기간에 접수하신 성도님들 참여 가능
- ▶ 문의: 박은혜 권사 (949)910-0327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Back to School 오이코프 온 세대 예배는 'OICOS'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9월 '오이코프(OICOF)'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9월 5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 엘리사 새벽기도회 은혜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9월 2일(화)~5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은혜 목장 (담당 서동민 목사)

◆ 수요저녁예배(자녀를 위한 기도회) 8월 한 달간 수요저녁예배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리에 부모 된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8월 20일 저녁 7시 30분, 박성권 목사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하반기 셀 개강 특강 하반기 셀 개강 특강이 9월 6일(토) 헬시바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성도님'을 은혜에 자리로 초대합니다.

◆ 화요큐티모임 '울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울림, 내 이야기가 당신을 울림', 화요큐티모임 '울림'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본당 앞 부스 및 큐알코드로 소그룹 나눔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면 참고)

◆ 베델 제자훈련생 모집 차별화된 베델제자훈련을 만나보세요. 양육반 오리엔테이션: 8월 24일(주일) 오후 1시, 비전 채플 (한/Eng)
제자훈련 신청 기간: 8월 17일(주일) - 8월 31일(주일)
오리엔테이션: 9월 7일(주일) 오후 1시, 비전 채플 (한/Eng)
문의: 이승호 집사 (714) 510-1364, Rev. David Park (Eng) (718) 490-9931

◆ 베델기도사역 연합기도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일시/장소: 8월 30일(토) 헬시바 예배 후 오전 7시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베델 MIT 가을학기 모집 MIT가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대상/기간: 62세 이상 시니어, 9월 4일(목)~11월 20일(목) 매주 목요일
강좌: 노래교실, 뜨개질, 유희, 종이접기, 난타, 통기타, 한국화, 한글서예, 건강 한의학, 향기로운 인격 만들기
문의: 이강오 장로 (949)281-9530

◆ 교회학교 PTA 교회학교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서별로 PTA 미팅(장소와 시간은 각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이 예정되어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베델 아기학교 29기 가을학기 모집 베델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9월 3일~11월 19일 매주 수요일 1회 총 12주 과정
정규반(15-48개월) \$300, 36명 / 추가반(30-48개월) \$200, 6명
문의: 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현승원 집사 (701)212-5517



◆ 베델 BAM 모집 봄학기 훈련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8월 10일(주일)~24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8월 28일~11월 20일(총 12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문의: 이완희 집사 (949)431-4398



◆ BYM 중등부 금요 프로그램 9월 19일부터 'Armor of God' 주제로 금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찬양과, 말씀, 소그룹을 통해 주일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을 학기: 9월 19일(금)~12월 12일(금) 저녁 7-9시
등록 기간/등록비: 8월 24일(주일)~9월 7일(주일), \$60
문의: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 C2C(Call to Christ) 힙합 댄스팀 모집 C2C는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청소년 댄스·힙합 사역입니다.
강사/대상/등록비: Teacher Daniel An, 6-12학년, \$350
모임 시간/장소: 매주 주일 오후 2시~6시(9월 중순~12월 중순), 비전 채플

◆ 어와나 등록 안내 9월 12일 금요일부터 어와나가 시작됩니다. 등록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등록 기간: 8월 24일 부터 9월 7일까지 (K-5학년 100명 선착순)
등록처/등록비: bkc.twotimtwo.com, \$65 (티셔츠 필요시, 따로 구입 필요)
문의: 위우정 집사 (714)423-4813, awana@bkc.org

◆ 축하해 주세요
- 강정훈 집사의 딸 Michelle Kang 양과 Jay Jung 군의 결혼식이 8월 30일(토)에 있습니다.
- 이근재, 이재영 집사 가정에 아들 원우(Isaac)가 18일(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정인란 권사님(전현준 목사의 모친, 전윤득 사모의 시모)께서 8월 19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오 복 성도님(김영근 집사의 모친, 채명주의 시모)께서 8월 21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church school, weekly services, and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center@hotmail.com

Supreme Jesus!



The Joys and Sorrows of Fellow Workers: A Reflection on Mark and Demas (Colossians 4:10–18)

1. Do I have a regular “ministry” that I serve for the kingdom of God? How many partners or co-workers do I have who share the same purpose?

2. As you briefly summarize the people Paul introduces, look around to see if there are similar people in your circle, and let us express our thanks to them.
 - 1) Aristarchus _____ (v.10, Ref: Acts 27:1–2)
 - 2) Mark _____ (v.10, Ref: Acts 15:36–39)
 - 3) Justus _____ (v.11)
 - 4) Epaphras _____ (v.12, Col. 1:7, Phil 1:23)
 - 5) Luke _____ (v.14)
 - 6) Demas _____ (v.14, Ref: 2 Tim. 4:10–11)

3. What thoughts and insights do we gain from the fact that Paul’s list of coworkers includes people who left and then returned like Mark, and people who betrayed and left like Demas? (Ref: Matt. 26:35; Matt. 10:2–4. Rom. 12:18, Answer by comparing Peter and Judas Iscariot.)

4. There were even co-workers who loved Paul so much they would have given their eyes for him like the Galatians (Gal. 4:15). There is a saying: “Good teachers are made by good students.” Rather than saying “If there were an apostle like Paul, I would be his co-worker,” let us become co-workers who help produce apostles like Paul.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